

야구를 보다 보면 “오늘 경기 있나?”보다 더 자주 부딪히는 게, 그 경기 시작 시간이야. 특히 KST 기준으로 맞춰 놓지 않으면, 라이브로 틀려다가 알람 타이밍을 놓치거나, 아예 경기 중간에 들어가 버리는 일이 생겨. 나는 예전엔 그냥 “대충 밤 시간대겠지”로 버텼는데, 이게 막상 KBO는 정해진 규칙이 있고, MLB는 지역과 서머타임에 따라 시작 체감이 흔들려서 계속 손해를 봤더라. 그래서 아예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보는 쪽으로 굳혔고, 그게 생각보다 오래 가는 습관이 됐어.

이 글은 KST 기준으로 KBO, MLB 중계를 같이 보면서, “내일 뭐 보지?”를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야구중계 타임테이블 만드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정리해볼게.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그럴듯하게 굴러가고, 야구중계사이트를 보더라도 최소한의 기준점을 잡는 데 도움이 돼.

타임테이블이 필요한 순간들

타임테이블을 “있으면 편한 것” 정도로 생각하면, 만들다가 흐지부지되기 쉬워. 근데 실제로는 야구중계를 볼 때 선택과 집중을 만들어주는 도구거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반복돼.

KBO는 시즌이 굴러가면서 중계 시작 시간이 특정 구간에선 규칙적으로 움직여. 그런데 그 규칙을 모르면, 같은 요일인데도 “어? 오늘은 왜 이 시간이 아니지?” 하고 당황하게 돼. 게다가 MLB중계는 구장 위치에 따라 시차 체감이 달라지고, 서머타임 여부까지 영향을 주니까 한 번 맞춰 놓은 감각이 다음 주에 어긋나기도 해.

그래서 나는 타임테이블을 “기분”이 아니라 “기준”으로 만들고, 그 기준을 계속 갱신해. 이 기준의 핵심은 공식 일정에서 확인되는 시작 시간, 경기 취소 여부, 그리고 (가능하면) TV나 라디오 중계 정보야. KBO와 MLB 모두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구장, 경기 시간, 중계 채널, 취소 정보 같은 게 같이 표시돼서, 타임테이블을 신뢰성 있게 구성하기 좋아.

먼저, KST 기준 타임테이블의 범위를 정하자

타임테이블 만들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너무 크게 잡는 것”이야. 한 달 치를 다 만들겠다고 마음먹으면, 중계 취소, 순연, 대진 변경 같은 변수가 쌓일 때 수정 피로가 커져. 그래서 난 범위를 먼저 정해.

보통은 이렇게 잡아.

처음엔 3일에서 7일 사이. 예를 들면 월요일에 만들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 경기 비중이 큰 리그를 같이 볼 때는 7일이 편하고, 평일 위주로만 보면 3일도 충분해.

여기서 중요한 건 “업데이트 주기”를 같이 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 아침에 공식 일정 확인하고, 저녁에 다시 한 번 중계 취소나 변동이 있는지 체크하는 방식. MLB는 시즌 전체 일정과 팀별 일정이 공개돼 있어서 큰 틀은 오래 가지만, 그래도 하루 단위로 확인하는 습관은 남겨야 해.

공식 일정에서 가져올 정보, 최소 세트만 잡기

야구중계사이트를 보면서 정보를 얻는 경우도 많지만, 타임테이블을 정확하게 만들려면 최소한 “정답에 가까운 기준점”이 필요해. 그 기준점으로는 공식 일정이 제일 깔끔해.

KBO 공식 일정은 경기 날짜별로 구장, 경기 시간, TV/라디오 중계, 취소 여부 같은 걸 보여줘서 타임테이블 재료가 딱딱 떨어져. MLB도 공식 일정에서 시즌 전체와 팀별 일정을 확인할 수 있고, 공식 순위 페이지에서는 승/패, 승률, 게임차, 최근 10경기, 연승·연패, 홈/원정 성적 같은 형태로 팀 상태를 함께 볼 수 있어.

여기서 타임테이블에 굳이 다 넣을 필요는 없어.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를 넣으면 쓰는 순간에 머리가 복잡해져. 나는 시작 시간, 경기 자체(어느 팀 대 어느 팀), 중계 채널, 취소 여부, 그리고 “기다려야 하는 경기인지 아니면 지금 들어야 하는지” 정도만 남겨.

타임테이블을 만들 때 확인할 건 딱 아래 정도로 정리하면 실수가 줄어.

- 경기 날짜와 시작 시간(특히 KST로 정렬되게)
- 경기 매치업(팀 A vs 팀 B)
- TV/라디오 같은 중계 채널 표기 여부
- 경기 취소나 변경 여부
- 내가 볼 팀의 최근 10경기 같은 상태는 다음 선택에만 활용(필요할 때만)

이 다섯 개면, 타임테이블이 “보기 편한 목록”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선택에 도움을 줘.

KBO는 KST 시작시간이 “구간 운영” 느낌이라 정리해두면 편하다

KBO는 정규시즌이 3월 말에 시작하고, 시즌 중 운영 시간이 바뀌는 구간이 있어. 2026년 기준으로 보면, 시범경기는 3월 12일 개막, 정규시즌은 3월 28일(토) 개막이야. 정규시즌은 팀당 144경기, 총 720경기고, 올스타전은 7월 11일(토)로 예정돼 있어.

여기서 타임테이블을 만들 때 제일 체감이 큰 건 “9월 들어서부터 시작 시간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같은 부분이야. KBO는 노동절 경기 시작 시간도 별도 공지로 움직이고, 평일과 주말, 공휴일 기준으로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 이런 규칙을 알고 있으면, 야구중계 준비 시간이 확 줄어들어.

정리하면 이런 식이야.

- 5월 1일 노동절 경기 시작 시간은 17시로 변경
- 9월 1일~14일: 평일 18:30, 주말·공휴일 17:00
- 9월 15일 이후: 평일 18:30, 토요일 17:00, 일요일·공휴일 14:00
- (이 규칙은 날짜별로 적용되므로, 실제 타임테이블은 공식 일정에서 시작 시간을 최종 확인)
- 올스타전 7월 11일 같은 큰 이벤트 날짜도 캘린더에 따로 표시해두면 일정을 놓치지 않음

이렇게 “룰”을 머리 속에 넣어두면, 공식 일정에서 하루치 정보를 확인할 때도 훨씬 빠르게 눈에 들어와. 그리고 만약 어떤 날이 예외처럼 느껴지면, 그건 룰이 깨진 걸 수도 있고, 실제 편성 변동일 수도 있으니까 결국 공식 일정 확인이 마지막 방어선이 돼.

MLB는 KST 변환 감각을 “구장과 서머타임”에 붙여서 관리해야 한다

MLB중계는 KBO보다 변수가 더 많아. 이유는 간단해. 한국은 KST(UTC+9)를 쓰지만, 미국은 동부, 중부, 산악, 태평양 등 여러 시간대를 쓰고 서머타임 여부도 달라지기 때문이야. 그래서 “작년엔 보통 몇 시였는데 올해도 비슷하겠지”라는 감각이 자주 틀려.

2026 시즌 기준으로 MLB는 3월 25일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뉴욕 양키스의 Opening Night로 시작하고, 3월 26일 전통적인 Opening Day가 열린다고 공식 발표돼 있어. 이 오프닝 구간만 먼저 보면, 그 시즌의 “시차 체감”이 어느 정도 잡히거든. 물론 이것도 한 번에 고정되는 건 아니고, 서머타임 변동이 생기면 다시 확인해야 하지만, 초반엔 감 잡는 데 도움돼.

내가 추천하는 방식은 두 단계야.

1) 시즌 시작 초반에, 내가 자주 보는 팀의 경기 시작 시간을 2주 정도 찍어본다.

2) 그 패턴으로 대략적인 KST 체감을 만들되, 실제 타임테이블에는 항상 공식 일정의 시작 시간을 다시 넣는다.

MLB 공식 일정 페이지에는 시즌 전체 경기와 팀별 일정이 공개돼 있고, 공식 순위 페이지에서는 팀 상태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타임테이블이 “시간표”로만 끝나지 않고, 언제 어떤 팀 경기 넣을지까지 연결되기 좋아.

타임테이블을 실제로 만드는 방식, 난 “표준 템플릿”부터 잡아

이 부분이 은근히 중요해. 사람은 정보를 다양하게 입력하면 편해 보이지만, 결국 쓰는 단계에서 다시 정리하기 힘들어져.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표준 템플릿” 형태로 고정해.

예를 들면 하나의 날짜 칸에 이런 흐름으로 채워 넣어.



날짜, 경기 시간(KST), 매치업, 중계 채널(표기된 경우), 취소 여부(확정일 때). 그리고 그 옆에 “내가 볼 확률 높은지”만 짧게 표시해둬. 이 표시가 진짜 핵심인데, 거창하게 이유 쓰지 말고 “관심 있음” 정도만 뒤도 충분해. 선수 컨디션 같은 건 공식 순위에서 최근 10경기 같은 걸 확인할 때 같이 판단하면 되고, 타임테이블에는 굳이 길게 넣지 않아도 돼.

그리고 업데이트는 공식 일정이 바뀌었는지에 집중해. 특히 취소 여부가 뜨는 날은, 시작 시간 자체가 아니라 “경기 자체가 사라졌는지”가 더 중요해지거든. KBO 공식 일정처럼 취소 여부가 일정 페이지에 함께 표시되면, 이런 관리가 꽤 수월해.

“KST로 정렬”을 끝까지 지키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타임테이블을 만들다가 중간에 흐트러지는 지점이 있어. 바로 정렬 기준. KST 기준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작성 중간에 편의대로 시간표를 바꿔버리는 실수가 생겨.

나는 타임테이블을 볼 때만 두 가지 규칙으로 잡아뒀어.

첫째, 모든 시간을 KST 기준으로만 표기한다.

둘째, MLB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느끼는 감각”에 맡기지 않는다. 공식 일정에 표시된 시작 시간이 기준이고, 그걸 그대로 KST 흐름으로 정렬한다.

이렇게 하면, MLB중계의 시차 때문에 “어? 오늘은 왜 낮이야?” 같은 착시가 줄어들어. 낮 경기라도 일정은 일정이니, KST로 정렬된 한 줄이 그날의 진짜 정답이 돼.

야구중계사이트를 볼 때 타임테이블 검증 루틴을 넣어두면 편하다

야구중계사이트는 선택지가 넓지만, 사람 마음이 급해지면 어느 순간부터 데이터 확인 없이 눌러버리는 경우가 생겨. 그러면 타임테이블이 무너져. 그래서 나는 “타임테이블이 맞나?”를 확인하는 아주 짧은 루틴을 뒀.

공식 일정에서 가져온 정보는 보통 이렇게 쓰면 안전해. 경기 시작 시간, 중계 채널, 취소 여부가 확인되는지. 만약 야구중계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시작 시간이나 취소 여부가 다르게 느껴지면, 그건 내 쪽 타임테이블이 오래된 걸 가능성으로 보고 공식 일정 쪽을 다시 확인해.

특히 KBO처럼 TV/라디오 중계, 취소 여부가 일정에 함께 표시되는 경우는, 검증 루틴이 더 단단해져. MLB도 공식 일정과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두면, 중계 채널 표기 방식이 달라도 “시간 자체”는 맞출 수 있어.

팀 상태까지 같이 챙기고 싶다면, 순위 페이지는 “결정용”으로 써라

타임테이블을 잘 만들어도, 결국 마지막 선택은 “오늘은 누구 경기 보지?”에서 갈려. 이때 순위 페이지의 정보가 꽤 유용해져. MLB 공식 순위 페이지는 승/패, 승률, 게임차, 최근 10경기, 연승·연패, 홈/원정 성적 같은 걸 보여줘. KBO도 공식 페이지에서 순위와 경기 흐름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내가 추천하는 방식은, 타임테이블 자체에 순위 정보를 길게 쓰지 않는 거야. 대신 “내가 볼 확률”을 올릴 때만 참고해. 예를 들어 같은 시간대에 두 경기 후보가 생기면, 최근 10경기 흐름이나 연승·연패 같은 요소로 결정을 빠르게 내리는 식. 이렇게 하면 타임테이블은 심플하게 유지되고, 정보는 필요할 때만 꺼내 쓰게 돼.

예시로 하루짜리 타임테이블을 머릿속에 그려보자

실제로 타임테이블은 글로 보면 감이 안 올 수 있어서, “어떤 형태로 굴러가는지”만 감 잡아보자.

예를 들어 어떤 날에 KBO 경기가 저녁 시간대(예를 들어 18:30 같은 구간)로 잡히면, 그 시간대 칸을 먼저 만들고 KBO 매치업을 채워. 같은 날에 MLB중계가 잡혀 있으면, MLB는 공식 일정에서 시작 시간을 확인해서 KST로 정렬해 같은 날짜 칸 안에 넣어. 이때 중계 채널이 표기돼 있으면 함께 적고, 취소 여부가 확정인지도 같이 확인해.

그 다음에 “내가 볼 확률 높은 경기” 표시를 하나 붙여. 예를 들어 오늘은 KBO가 확정이고, MLB는 시간이 애매하게 느껴져서(시차 체감 때문) 확률을 조금 낮추는 식으로. 다음날 아침에만 공식 일정 변동이 있는지 다시 [야구중계](#) 체크하면, 큰 수정 없이 유지가 돼.

이 방식이 좋은 건, 타임테이블이 “오늘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내일의 선택”을 줄여주기 때문이야.

자주 생기는 문제들, 그리고 내가 쓰는 해결 방식

타임테이블은 만들 때보다 유지에서 문제 생기는 일이 더 많아. 흔한 케이스를 기준으로만 정리해볼게.

첫째, 시작 시간이 생각보다 다른 경우.

이건 보통 KST 기준을 틀리게 적용했거나, KBO는 날짜 구간 운영 규칙이 바뀌는 시점인데 업데이트를 안 해서 생겨. 해결은 간단해. 그날의 공식 일정에서 시작 시간을 다시 확인하는 거야.

둘째, 취소 여부 때문에 “빈 시간”이 생기는 경우.

KBO 공식 일정은 취소 여부가 일정 페이지에 표시되기 때문에, 타임테이블도 그걸 그대로 반영하면 문제를 줄일 수 있어. MLB도 공식 일정에서 변동을 확인하고, 내가 쓰는 타임테이블에 그 내용을 업데이트하면 해결돼.

셋째, MLB에서 낮 경기로 체감이 뒤틀리는 경우.

이건 네가 잘못했다기보다 시차 감각의 문제일 가능성이 커. 그래서 해결은 “감각”이 아니라 “표준”으로 돌아가는 거야. 공식 일정의 시작 시간을 KST로 정렬해 계속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면, 시간이 이상하게 느껴져도 실제로는 틀리지 않게 돼.

마지막으로, 언제 어떻게 업데이트할지 정해두자

타임테이블을 꾸준히 쓰려면, 업데이트 기준이 있어야 해. 특히 야구중계는 매일 생기지만, 내 시간이 매일 똑같은 않잖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굴러.

먼저 앞에서 말한 대로 3일에서 7일 범위만 잡고, 그 구간만 매일 확인해. 공식 일정에서 취소 여부나 경기 시간 변동이 보이면 그 부분만 수정하면 돼. KBO는 9월 같은 구간 운영 규칙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으로 들어갈 때는 특히 한 번 더 신경 쓰는 편이고, MLB는 시즌 초반 오프닝 구간에서 감각을 잡고 나서도 공식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계속 정렬을 유지해.

이렇게 운영하면, 타임테이블이 “한 번 만들어 놓고 끝”이 아니라 “계속 쓸 수 있는 도구”가 돼. 결국 야구중계는 실시간으로 변하고, 우리 일정도 실시간으로 변하니까, 둘 다 흔들릴 수 있다는 전제에서 최소 수정으로 버티는 게 제일 오래 간다.

원하면 내가 쓰는 방식 그대로, 너가 자주 보는 팀(예: KBO는 특정 1-2팀, MLB는 특정 1-2팀) 기준으로 “KST 타임테이블 템플릿 문구”도 만들어줄게. 어떤 리그 조합으로 보게? KBO만, 아니면 KBO + MLB 같이 보는 패턴인지부터 알려줘.